

임진왜란후 조선 300年, 범죄로 한 꺼풀 벗겨내다

전주=김창곤 기자

입력 : 2014.09.29 03:02

[조선시대 重罪人 심문록 '추안급국안' 한글본 10년만에 완간]

심문대상자 양반서 궁녀까지... 변란·역모 등 279건 중범죄로
당대의 삶 전반 생생히 복원... 15만매 번역, 총 90권에 실려

사극(史劇)에서 광해군은 균형 외교의 지략가로 그려진다. 영조는 탕평 군주, 정조는 개혁 군주다. 이른바 전형화(典型化)를 통해 시대와 캐릭터를 명쾌히 재단하면서 극적 효과나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전형화는 그러나 사실(史實)이 복잡하게 얽힌 실제 역사를 놓치게 한다.

조선 후기 중죄인 심문 기록인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 한글로 출간됐다. 약 300년간 최고 검찰이자 법원인 추국청의 추안(推案)과 국안(鞫案)들을 모은 책이다. 변란과 역모에서 강상(綱常)의 범죄까지 사건과 그 이면을 생생히 전하며 '전형화의 딜레마'에서 역사를 구출한다.



▲ 추안급국안 번역팀. 왼쪽부터 이상식(고려대), 한 사람 건너 허부문(서강대), 이향배(충남대), 서종태(전주대), 이선아(전북대) 교수,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연구소 명예소장), 조윤선(한국고전번역원), 김우철(한중대), 문용식(전주대), 변주승(전주대), 오향녕(전주대) 교수. /전주대 제공

탕평 군주로 알려진 영조는 정적들에게 가혹했다. '추안급국안' 전체 심문기록 279건 가운데 90건이 영조 때의 역모 사건 기록이다. 52년간 재위했으니 해마다 1.7회꼴로 추국청이 열린 셈이다. 영조는 1728년 이인좌의 난에 가담한 혐의가 없다고 방면한 전라감사 정사효를 2년 뒤 다시 불러 물고를 낼 만큼 집요했다. 추안급국안은 이인좌의 난 당시 거병했다가 한밤중 전주 풍남문 수문장이 성문을 열지 않으면서 전라 반군의 내응이 좌절하는 과정을 사회면 기사처럼 전한다.

광해군은 즉위 14일 후 아버지 선조의 빈소를 두고 친형인 임해군 제거에 착수했다. 임해군 주변들을

모두 불러들이며 4개월간 추국을 진행했다. 이상적인 개혁 군주로 소개되는 정조 역시 왕조의 주인으로 유교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추안급국안은 선조 34(1601)년에서 고종 29(1892)년 사이 추국 사건 연루자 1만2000여명의 심문 기록을 문서 1만2589건에 담으면서 당대의 민낯과 속살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심문 대상자로 양반과 노비, 그리고 관료·농민·상인·궁녀·승려까지 이웃과 친족을 망라한다. 당대의 식주와 풍속, 모순과 갈등, 사람들의 심성까지 삶의 전반을 생생히 복원한다. 요약된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와 같은 정(正)과 충(忠)과 명(明)의 기록이 아니라, 반(反)과 역(逆)과 암(暗)의 기록으로 정치·경제·사회·사상·민중·여성·종교사의 보고(寶庫)가 된다.



▲ 추안급국안의 한글 번역본. /전주대 제공

붓물을 이룬 반역만 해도 체제 저항이라기보다 당파 이해와 친분, 돌발적 일탈이 뒤섞였다. 상민(常民)들의 잦은 왕릉 방화는 벌목 처벌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 임금을 혈통거나 관가를 겨냥해 과서(掛書·벽보)를 붙여도 역모였다. 17세기 말 미륵신앙이나 19세기 초·중반 천주교는 반체제 이념이었다. 조선은 후기로 갈수록 유교 윤리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소란스러워진다. 추안급국안에선 아전이 사또를 골탕먹이기 위해 사건을 꾸미고, 노비는 상전에게 '너'라고 대든다.

중죄인들은 경국대전에 따라 고을 수령에서 관찰사, 추국청에 이르는 3심 절차를 밟았다. 추국은 대신, 때로는 왕이 진행했다. 고문으로 얻은 자백도 반드시 피의자의 수결(手決·사인)을 받았다. 하급 관리들은 심문·재심문·대질심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기 위해 한글과 이두를 쓰기도 했다. 한국 법제사는 물론 중세 국어사의 보물 창고가 되는 이유다. 조광 고려대 명예교수는 "추안급국안은 무궁무진한 콘텐츠로 조선 후기 연구에 활력을 주고 학문 융합을 도우면서 사극에도 새 소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추안급국안 한글본은 672만6000자의 원문을 200자 원고지 15만매로 번역, 90권에 실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변주승)를 중심으로 학자 10명과 보조 연구원 20여명이 10년 만에 거둔 결실이다. 전국의 조선 정치·경제·사회·사상사 전공자들은 2004년 8월 이후 매월 3박4일로 전북 완주의 천주교 호남교회사연구소에 초고를 들고 와 합숙 세미나를 열었다. 사어(死語)가 된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면서 토론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렇게 방대한 고전 번역서가 완판본(完板本)의 고장 전주에서, 지방대 연구소에 의해 완성된 것도 처음이다. 심부름하던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은 이제 박사과정의 신진 연구자가 됐다. 변주승 교수는 "알기 힘든 초서 등으로 쓰인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인터넷 웹에 올리면 효용은 배가될 것"이라고 했다.
